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5호

2021년 9월

전문가 기고

ESG 경영과 사업 포트폴리오

주요 이슈

ESG 경영전략

Supply Chain과 ESG

ESG 동향

제3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 및 기업 동향

주요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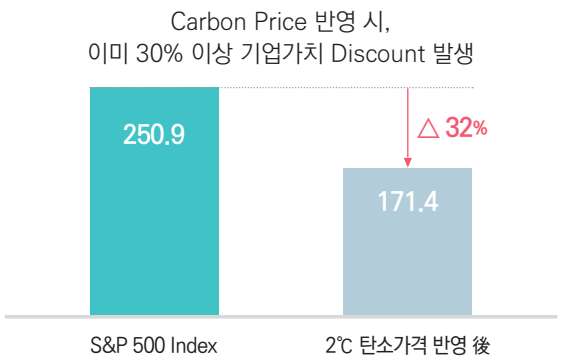
ESG 경영과 사업 포트폴리오

삼정KPMG ESG 비즈니스그룹 리더
이동석 부대표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위험 요소의 분산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개별 사업을 시장 매력도와 내부 경쟁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고 평가하며,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미래 시장 변화 전망을 토대로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철수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ESG 경영은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다. 이미 글로벌 주요 기업 CEO들은 ESG를 기업 성장전략의 최우선 어젠다 중 하나로 설정하고 ESG를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와 결합하여 새로운 통합 성장전략을 구현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ESG 경영을 선포하고, 비용과 Resource를 들여 ESG 경영체계 (예를 들면 ESG 비전 수립, 이사회 및 전담조직 구축, 생산 및 전공급망의 Operation 혁신, ESG 성과관리, ESG 평가 대응 등)을 구축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내 기업들은 ESG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와는 별개의 전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ESG 경영 활동만으로는 기업이 지속 성장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 경영진은 자칫 잘 못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 이는 최근 ESG 트렌드 변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시장 매력도와 사업 가치(Valuation)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S&P사가 분석한 S&P 500 Carbon Price Adjusted Index (기존 S&P 500 지수에 중장기 탄소가격 전망을 반영한 기업가치 지수)에 따르면 Carbon Price 반영 시 이미 30% 이상의 기업 Discount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앞으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구현하고 기업 경영진이 ESG 기회와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S&P 500 Carbon Price Adjusted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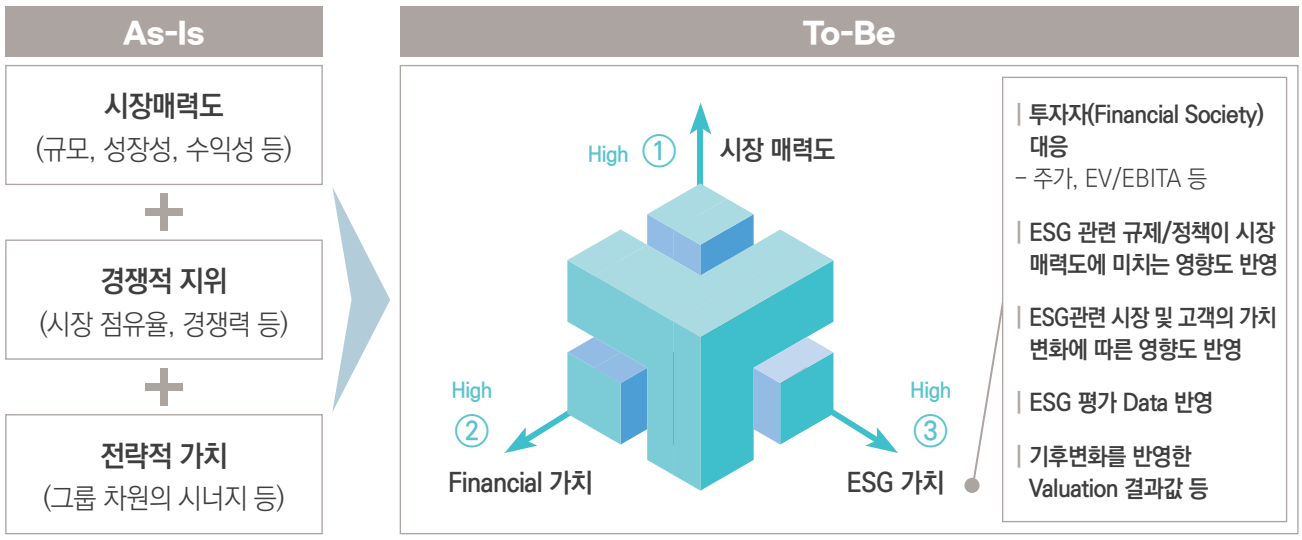
- 중장기 탄소가격 상승 전망은 기업 가치 하락 초래 가능
- ESG 가치를 EV 자산 가치 / 투자 사업 평가에 반영 필요

그렇다면,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ESG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현재까지 기업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시장 규모, 성장성, 수익성 등 시장 매력도와 기업의 내부 경쟁력, 그리고 사업의 전략적 의미 등을 기준으로 구축해 왔다.
다시 말하면, 보다 매력적인 사업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ESG 경영 요소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금은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ESG 경영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ESG 관련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발

ESG를 반영한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 / 관리 Framework*



※ KPMG SCG (Strategy Consulting Group)의 Integrated Business Portfolio Management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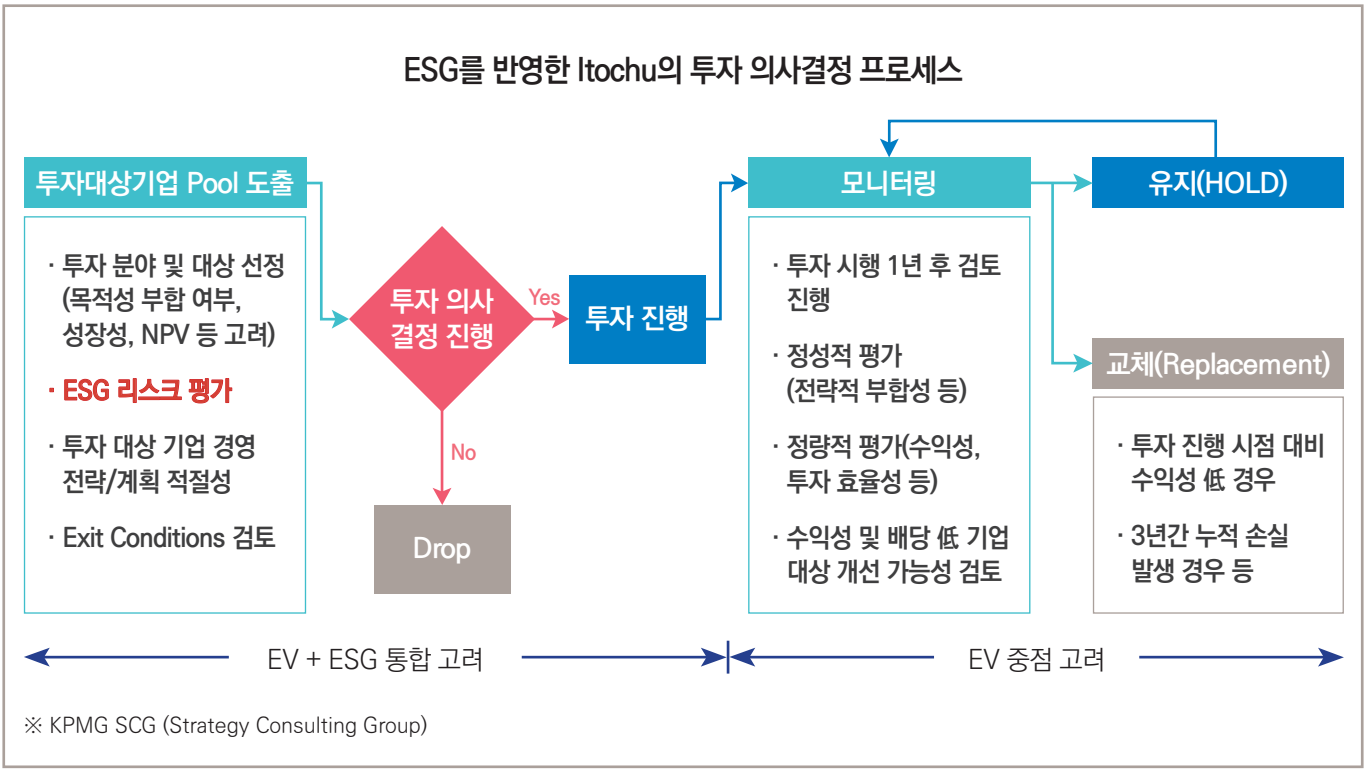
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4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기후관련 금융위험'을 핵심으로 한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를 포함 금융안정감독위원회, 연방보험청, 노동부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또한, 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미국 등 선진국들의 ESG 리스크가 높은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 제제 조치 강화, 글로벌 고객의 친ESG 제품 중심의 구매 전략 변화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등은 기존 사업의 매력도 측면에서 큰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무디스, S&P 등 주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신용등급에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ESG가 미흡한 기업에는 투자 중단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ESG 경영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ESG는 기업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시각이다. ESG로 인해 내외부 사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존에 검토된 사업의 매력도 관련 세부 항목들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독일의 화학회사인 BASF는 자사 상품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SV (Social Value) 창출 효과가 가장 우수한 그룹에 R&D 예산의 60%를 투자하고 있으며, 가장 성과가 낮은 그룹은 5년 내 SV 성과 창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업포트폴리오의 개선만으로 ESG 트렌드를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신사업 진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무적 관점의 EV(인수의 경우) 및 업의 시장 전망



과 ESG 리스크 관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사업 진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영국의 British Petroleum은 최근 석유화학부문을 매각하고 친환경 전기 충전소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파나소닉은 친환경 스마트 시티 등 Eco Solution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ESG 선도 기업인 SK그룹 또한 Green, 첨단소재, 바이오, 디지털의 4대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ESG Opportunity(시장)와 ESG Risk를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內 통합적으로 반영한 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일본 Itochu는 투자 대상 기업 Pool 선정 시, ESG 리스크와 재무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투자 진행 후 전략적 부합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유지 또는 교체를 결정한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단이자 활동이다. ESG 관련 지표 관리나 높은 평가 점수 획득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기업들은 ESG 기회와 리스크 요소들을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여 재평가 및 이에 따른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이슈 1

ESG 경영전략

김천구 연구위원

ESG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요소다. 성공적인 ESG 경영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한 측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SG 성과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① ESG 경영전략 필요성

금년 들어 ESG가 기업 경영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다.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ESG 전략 수립과 관련 정보공시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기업가치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결국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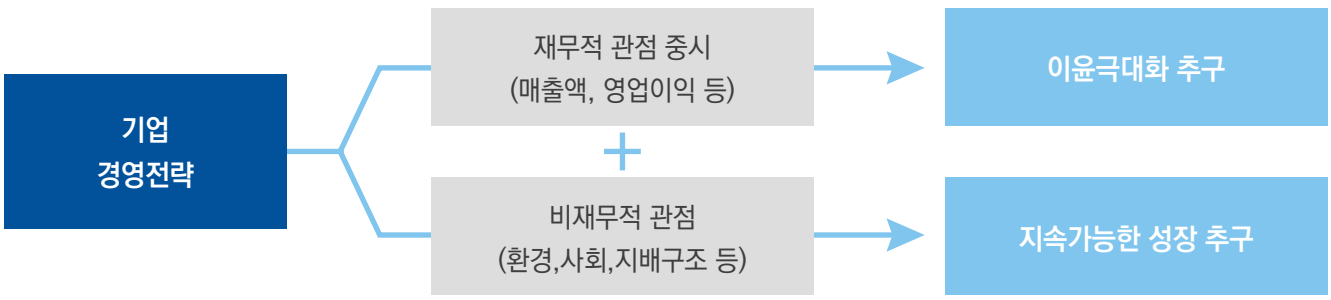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품질과 가격을 중시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적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했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성장전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가성비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이미지를 고려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한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의 중심축이 기성세대에서 MZ 세대로 이동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MZ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탄소배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민감하다.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기업이 얼마나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긴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ESG 경영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예측가능성이 높아 투자를 유치하기 쉽고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기업가치 제고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의 재무적 관점을 중시했던 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ESG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ESG 확산과 기업 경영전략



② ESG 경영전략 추진체계

기업이 성공적으로 ESG 경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ESG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measurement)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영관리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교수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계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SG 측정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ESG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의 ESG 수준이 파악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ESG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성과를 높이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면 친환경 중심의 제품을 출시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 있다.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의 ESG 경영 요구에 맞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국 기존 재무적 관점의 경영 활동과 비재무적 ESG 경영 활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에너지 회사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2020년 2월에 탄소 분야의 투자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넷제로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이 크게 줄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 ESG 경영 활동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이 수행한 ESG 경영성과를 시장에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 기업이 ESG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ESG 관련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가치 창출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SG 경영전략 추진체계

① ESG 측정	② ESG 목표 설정과 실행	③ ESG 정보 공시
- 기업 비재무적 활동 포착 - 확보된 ESG 관련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 ESG 관점의 기업 비전과 목표 설정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 실행체계 구축	- 투자자에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통한 ESG정보 제공 - ESG 관련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제공

주요 이슈 2

Supply Chain과 ESG

선병수 책임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EU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생산 과정 전반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EU의 공급망 관리 규제(Due Diligence)

생산구조의 분업화와 아웃소싱이 확산되면서 협력업체 등의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인권이나 환경 관련 부정적 이슈가 규제 및 평판 리스크로 이어져 기업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6년 나이키 축구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파키스탄 아동 노동착취 이슈와 이로 인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일깨워준 대표적 사례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생산 과정 전반에서의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법·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난 2월 EU 의회는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Due Diligence)하는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고, EU 집행위가 금년중 법안을 발표하는 등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 의회가 발표한 기업실사지침안은 역내 기업에 대해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을 EU 영토에 설립된 대기업, EU 시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물론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U 외의 지역에서도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자사 및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도 방지를 위한 정책과 협력업체 실사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사업장 및 공급망에서의 현대판 노예 관련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 주요내용

적용 대상	· ① EU 회원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대기업 ② EU 영토에 설립된 대기업 · ③ EU 소재 모든 상장 중소기업 및 고위험 산업 중소기업 · ④ EU 시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기업
국제 기준	· UN 기업과 인권 행동지침, OECD 기업실사지침 등
실사 항목	· 인권 및 환경 전반
의무사항	· 성명서 또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②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와 글로벌 기업 사례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 유통 ·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기업들이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UNGC(UN Global Compact),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4단계로 세분화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의 첫번째 단계는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종류와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리스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번째 단계는 리스크 식별에서 공급망 관리 성과까지 기업의 노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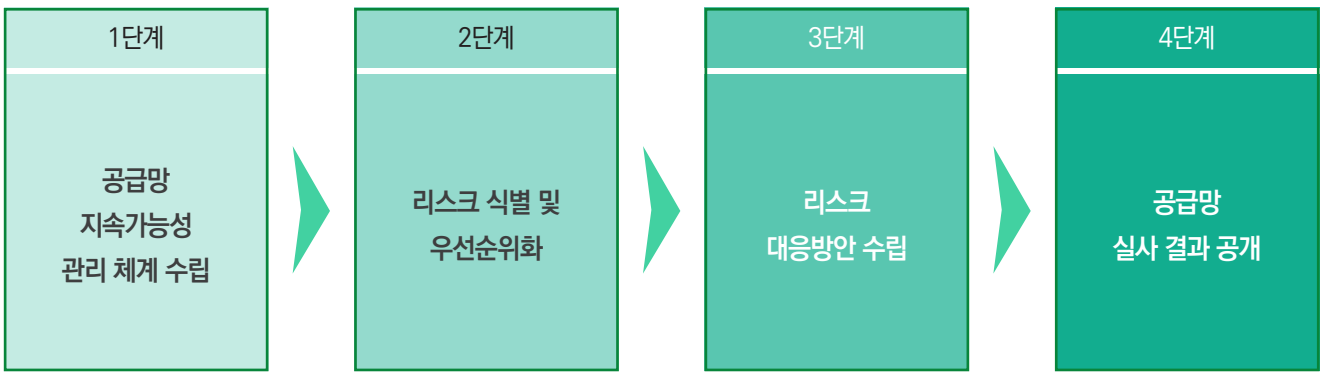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들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도 요구한다.

애플은 공급망 內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권, 인권, 환경 보호 등 행동 수칙을 마련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49개국 1,142개국의 협력업체를 평가했고, 10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는 원료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엘, 헨켈 등과 공동으로 화학기업 글로벌 네트워크인 'Together for Sustainability'를 설립하고 화학기업 공급망의 ESG 성과 제고를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등에 따라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인권, 안전시설 확보, 환경적 공정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4단계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 자료 : UNGC,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동향 1

제3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김민성 연구원

올해부터 제3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등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제3기 배출권거래제는 2025년까지 시행된다.

① 제3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21~202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되 부족하거나 남으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기 배출권거래제는 제2기와 비교해서 적용대상을 늘리고, 유상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거래시장 참여자를 확대했다.

적용대상 업종의 경우 교통, 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69개로 확대되었고, 대상업체도 684개로 늘어났다. 유상할당 비율은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제3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할당업체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융기관과 개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 대상 업종 및 업체

	대상 업종	대상 업체
제2기	62개	589개
제3기	69개	684개
비고	교통 · 건설 추가	

※ 자료 : 환경부 제3차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② 주요 산업별 대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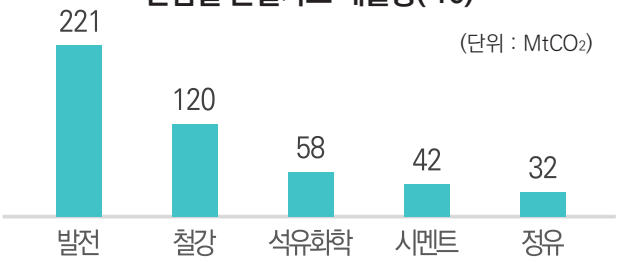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 발전이나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제3기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거나 생산공정을 혁신하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철과정에서의 석탄 사용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장가동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과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중유보일러를 LNG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19)



※ 자료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산업은행

ESG 동향 2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 및 기업 동향

이진 연구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법개정이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Russell Investments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80% 이상이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로 지배구조(Governance)를 꼽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지배구조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이 대표적인데 공정경제 3법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그룹의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도 공정경제 3법 등 관련법 개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CJ그룹과 삼성그룹은 계열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참석에 따른 주주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및 의사결정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LG그룹은 지난 3월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LG그룹은 내부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그룹 내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그룹의 투명경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 현대자동차 등 여성 등기임원을 새로 선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기업은 특정 성별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주요내용

개정 법안	도입 목적	개정 내용
상법 개정안	소수주주 권익 보호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 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안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 수립 · 재무건전성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 자료 : 신한금융투자

ESG 통계 지표

2021년 8월말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21	31	43	55	69	85	94	105	122	122
사회적채권	178	471	488	505	538	572	599	632	663	689
지속가능채권	8	44	46	58	69	93	113	124	144	162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잔액

(단위 : 천억 원)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21	30	43	57	72	90	103	113	129	128
사회적채권	246	736	766	786	847	918	979	1,018	1,079	1,125
지속가능채권	21	54	56	74	80	99	105	120	129	141

2. ESG 평가

S&P Global Sustainability Yearbook Rankings 2021*

(단위 : 개)

Ranking	Gold Class	Silver Class	Bronze Class	Industry Movers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
글로벌 기업 수	70	74	98	52	388
한국 기업 수	4	2	8	4	26

* Yearbook Rankings 2021 : 2020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이었던 7000여개 기업 중 상위 631개 기업에 랭킹 부여

3. 기타 통계

적도원칙* 가입 금융기관 수 추이

(단위 :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글로벌 금융기관 수	3	4	5	4	2	3	7	5	1	8	14	8
한국 금융기관 수								1			1	4

* 적도원칙 : 대형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문제가 예상될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의 자발적 행동원칙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6월	|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규제·정책 동향 |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7월	|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8월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9월	**| ESG 경영전략 | Supply chain과 ESG**
10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11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12월	|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ESG 경영전략

김천구 연구위원

T. (02)6050-3140 | E. ck1009@korcham.net

Supply Chain과 ESG

선병수 책임

T. (02)6050-3133 | E. nova1045@korcham.net

제3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 및 기업 동향

이 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